

이코노&비즈 피플

한국산업단지공단 강 남 훈 이사장

“매년 광주·전남 20여개 글로벌 강소기업 키울 것”

기술 등 기업주치의센터 지원 박차
중기도 독자 브랜드 개발 등 나서야

“강소기업이 많아야 지역 산업 생태계도 튼튼해집니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매년 20여개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계획중입니다.”

지난 11일 광주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한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광주·전남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롤 모델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역량과 체질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연 매출 100억원까지 성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매출이 500억원, 1000억원을 넘어서려면 기술개발과 마케팅, 직원 역량 강화 등 경영 전반적인 부분이 패키지로 행태로 움직여야 한다”며 “기업주치의센터사업 등을 통해 금융과 기술, 경영, 마케팅 전문가를 투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업주치의센터사업은 기술·경영·금융 분야의 전문가가 중소기업에 심층 진단한 뒤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진단 및 해결과 정책연계, 역량 강화, 생



애주기별 맞춤형 성장지원 등을 컨설팅 하는 서비스다. 현재 광주 기업주치의센터는 현성오토텍㈜ 등 강소육성대상 13개 기업에 총 40개의 육성과제를 포함한 상담

행, 과제형 코칭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하남산단에서 평동산단으로 이주한 광주의 한 기업은 공장 이전시 기업주치의센터의 도움을 받아 새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제2의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강 이사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 많은 정책이 있지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관된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것은 산단공이 처음일 것”이라며 “산단공을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 조직으로 개편해, 모든 지원을 원스톱시스템으로 처리하면 보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데 보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강 이사장은 “대기업 협력업체는 진입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현 상태에 안주하기 쉽다”며 “납품 구조를 다변화하고, 독자 브랜드를 만드는 등 규모 키우기에 나서야 한다. 대기업 또한 과거엔 납품을 독점화 하려 했지만 최근엔 거래선 확장을 장려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산단공이 산·학·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추진중인 미니클러스터 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및 자생력 키우기에 큰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과 산업정책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등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삼성전자 시총 비중 14%대로 떨어져

2년7개월만에 처음

코스피 박스권 돌파 기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년 7개월 만에 15%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 대장주의 시총 비중 감소가 오히려 코스피 박스권 돌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 역설론’이 증권가에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전자 시총 비중 14%대로 떨어져 =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들어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은 대부분 15%를 밑돌았다.

9월 1~15일까지 총 8거래일의 절반인 4거래일(지난 2·3·5·11일) 동안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은 14%대에 머물렀다.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15%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2년 2월 15일(14.7%) 이후 약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은 15.03%로 간신히 15% 선에 턱걸이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는 호재와 악재가 맞물리며 부침을 겪었다.

새해 벽두부터 지난해 4분기 실적 불안감이 고개를 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초(1월 3일 기준) 130만원선이 무너졌

다. 하지만 3월 말부터 ▲삼성SDI·제일모직 합병 발표 ▲삼성SDS 연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발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심장 수술 등 삼성그룹 관련 대형 이벤트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세를 탔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가속화와 배당 확대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역설... “대장주 비중 줄면 코스피 박스권 돌파” =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줄어들 때 코스피가 박스권을 벗어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해정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2000년대 중반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25% 가까이 올랐을 때 주식시장은 박스권에 머물렀지만, 이후 삼성전자의 비중이 줄어들자 오히려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벗어나 2,000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4월 말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24%에 가까웠을 당시 코스피는 5년째 박스권에 갇힌 상태였다. 이후 코스피가 박스권을 벗어나 지난 2007년 2,000선에 도달했을 때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은 7~8%대로 낮아져 있었다. 지난 2011년 5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올랐을 당시에도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은 10~11%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오늘 한전부지 입찰 마감... 정몽구·이재용 결단만 남아

삼성 “보안 유지” 현대차 “무리 않겠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땅인 한국전력 삼성동 부지 입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축구장 12개를 합친 면적(7만9천342㎡)의 한전부지 입찰은 감정가만 3조3천3억4천만 원으로, 단일 자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입찰이다.

여기에 국내 제1, 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간 2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누가 최종 땅주인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전은 17일 오후 4시까지 입찰을 진행한 뒤 최고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18일 오전 10시 낙찰자로 선정한다.

16일 제계에 따르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는 입찰을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날까지도 한전부지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비공개 전담조직을 꾸려 입찰을 준비해왔으며 이미 입찰 조건과 사업성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인수전 참여를 선언한 현대차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입찰 참여 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입찰에 필요한 서류 준비 작업을 마

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전부지 인수전의 승패는 누가 더 비싼 값을 부르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두 그룹의 최고 경영진은 마감 시간 직전까지 입찰 가격을 얼마나 써낼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결단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한전부지는 감정가만 3조3천346억원, 입찰 참여자들은 한전이 감정가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정한 입찰 하한가를 넘는 가격을 써내야 한다. 따라서 낙찰 가격은 4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인수전에서 승리하면서도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을 적정 가격선을 정하는 것이 이들 그룹의 숙제다. 현대차의 한 고위 관계자는 “터무니없이 무리한 가격을 써내지는 않겠다는 것이 내부 기조”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부동

산 개발에 청사진도 밝히지 않은 채 뛰어든 경우 주주를 비롯한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 입찰에서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항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력 계열사를 주축으로 한전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단독으로 응찰할지, 아니면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등 알짜 계열사와도 컨소시엄을 구성할지를 놓고 막판 조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단독으로 한전부지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양재동 사옥과 부지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 현대차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규모는 17조6천억 원으로, 인수비용과 개발비용을 충당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계열사와도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자본 관리 등이 복잡해지는 점도 단독 인수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 중 하나다. /연합뉴스

한은서 풀린 5만원권 안 돌아온다

시중화폐 70조 돌파

시중 유통 화폐가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했다. 5만원권이 일단 한국은행 금고를 빠져나가면 상당수가 좀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화폐 잔액(기념화폐 제외)은 70조496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3298억원(1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5만원권이 1년 전보다 9조8933억원(26.1%)이나 늘어난 영향이 컸다. 1만원권의 유통 잔액 증가규모는 같은 기간에 1조1202억원(6.7%), 5000원권은 1451억원(12.9%), 1000원권은 982억원(7.3%) 등이었으나 5만원권은 증가액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두드러지게 높다.

실제로 올해 1~8월 5만원권의 환수율은 22.7%로, 작년 동기(54.0%)의 절반에

도 미치지 못했다. 이 기간에 한국은행 금고에서 나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장이면 한은에 돌아온 5만원권은 약 23장이라는 얘기다.

한은은 지난 3월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 지하경제는 분석이 어려운 만큼 과학적인 원인만 본 평가라는 전제를 달아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고 저금리로 화폐 보유성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난해부터 환수율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5만원권 증가의 배경에 세금을 피하려는 지하경제 수요가 적잖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만원권의 연간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서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 다가 지난해 48.6%로 뚝 떨어졌다. /연합뉴스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 단독, 공동투자 하실 분
-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남/여 직원 모집

- 35세 이하, 차량소지자 우대
- 초봉 150만원부터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아파트형 콘도 / 별장 / 펜션 분양

주인 직매, 010-3180-8900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 아파트 개념
전기/수도 개별, 노래방/식당/세미나실 사용 가능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TV등 빌트인 시설 포함

★ 산속의 궁전
화개장터, 쟁계사, 노고단 근접거리

★ 총 55세대 (18/28/56평) 중 1세대
28평 - 8400만원(운차 2300만원 포함)

오피스텔 "매매"

- 29평 - 12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양동 하천 방향, 20층중 12층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주거용
매매가 - 7200만원
- 53평 - 13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 좋음, 20층중 13층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
매매가 - 1억5천500만원
- 77평 - 20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 좋음, 최상층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매매가 - 2억5천500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